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AUTUMN, 2020

가을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9월 1일(화) ~ 11월 30일(월)
/ 접수기간 8월 3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문의 감삼점 565-0877~8
서재점 624-0500



푸른방송 문화센터 개관 25주년
100th 수강 감사 이벤트!

하나. 문화센터와 함께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을학기 수강등록 회원 선착순 100명에게
Coffee **bite.** 롱블랙 커피상품권(1매)을 드립니다.



두울. 푸른방송 상품가입하고 문화센터 무료수강하자!

8~9월 중 푸른방송 상품(방송/인터넷) 신규 가입하시면 가입 상품 수에 따라
푸른방송문화센터 50% 할인 및 무료 수강의 기회를 드립니다
※가입자 본인 및 직계가족만 적용(중방서류 첨부)



푸른신문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제 1,137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달성 지역신문
www.prsinmu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와 SPLEX
MIGWANGSPO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593-9990~7
신관. 골프장&스크린골프 : 053) 584-0775

헬스 연건회원 댄스·요가·필라테스·스피닝 무료수강!
사우나 헬스 100% 참나무
24시간 골프 연습장
휴림원 300대 주차장 완비!
☎ 585-0100
대실역 2번 출구 대백마트 뒷편

포장이사 전문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곡점 611-7824 화곡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집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푸른방송, 텔레비 성서노인복지관 운영

GCS푸른방송(대표 조현수)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재경)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TV를 통해 노인복지관 강좌를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 성서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두 기관의 협약에 의해 추진됐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대면 강좌는 접촉과 비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 이를 해소하고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교실, 사교댄스, 건강체조 등의 강좌를 TV 송출로 전환, 푸른방송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이들 강좌에 참여함으로써 우울감도 극복하고 활동량도 늘리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교육 강좌가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사례는 많지만 TV를 통해 서비스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조재경 관장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TV를 통해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을 보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조현수 대표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푸른방송은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 방송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적·육체적 아픔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텔레비 노인복지관을 운영해주신 성서노인복지관과 푸른방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상세문의는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667-3596) 또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721-8081)

변점식 기자

달성군 '나라꽃 무궁화 명소' 특별상 수상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산림청 주관 '제7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은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궁화 명소 공모' 사업에서 달성군을 포함한 5곳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서 신청한 무궁화 명소 27곳을 대상으로 생육환경·규모·접근성·사후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무궁화동산은 면적 0.6ha, 거리 0.4km 규모로 조성되었고, 무궁화 1,085여 본(가로수형 113본, 관목형 972본)의 다양한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다. 또한 태극기나무, 바람개비를 활용한 태극기동산을 조성하고 5대 국가상징물 안내판을 설치해 무궁화 관련 콘텐츠를 강화했다.



테크노 중앙공원 무궁화동산

김문오 군수는 “이번 무궁화 명소 선정으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크노 중앙공원 무궁화동산 태극문양

〈자료제공·달성군청〉

지면안내»

지역	>	03~09면	>
고령	>	12면	>
성주	>	13면	>
지역사랑파트너	>	15면	>
종합	>	16~19면	>
기고	>	20~21면	>
교육	>	23~26면	>
문화	>	27면	>
건강	>	28~29면	>
운세·날씨	>	30면	>
퍼즐	>	31면	>



달서구문화원은 영상을 통해 우리주변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회 달서구문화원UCC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요강

- ▶ 출품자격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 ▶ 공모내용 : 제한 없음
- ▶ 출품규격 : 순수창작영상
작품분량 - 1분 이상 3분 이내
해상도 - 720x480이상(1280x720이상 권장)
파일형식 - mp4, wmv, avi
제작기간 - 전년도 ~ 당해 연도 제작영상에 한함
- ▶ 출 품 수 : 1인 또는 1팀(4인 이내)당 2작품 이내, 입상 시 상금은 입상작품 건당 지급
- ▶ 참 가 비 : 없음
- ▶ 접수기간 : 2020년 8월 6일(목) ~ 2020년 9월 28일(월)
- ▶ 접수방법 : 1)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사이트<www.dalseo.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cc704ds@hanmail.net)로 접수
2) 유튜브 사이트에 응모작 업로드 후 URL 제출
유튜브(http://www.youtube.com)에 개별 아이디로 접속→응모작 업로드
_제목 : "작품제목"[제2회 달서구문화원UCC공모전]
3) 웹하드 데이터 업로드(아이디:ds704cc, 패스워드:ds5544800)
< 1)필수 / 2),3)중 택1 >
- ▶ 심사일시 : 2020년 10월 10일(토) 예정

유의사항

- ▶ 모든 응모작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창작 아이디어에만 함(표절 작품은 수상에서 제외)
- ▶ 상업적 목적이 있는 응모작은 시상에서 제외
- ▶ 수상작의 저작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부담
- ▶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 수상 후 위작 또는 표절 등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회수 및 법적조치
- ▶ 공모에 채택된 UCC영상물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 출품작은 제3자의 저작권(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폰트 등), 초상권, 상표권 등 일체의 법적문제가 없어야 하며, 무료음원사이트(유튜브 라이브러리, 문체부 공유마당 등) 이용을 권장
- ▶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 응모작은 공익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시상내역

초·중·고등부	
상별	인원
대상(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상)	1명 상정수여
금상(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상)	1명 상정수여
은상(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장상)	2명 상정수여
동상(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장상)	2명 상정수여

대학·일반부	
상별	인원
대상	1명 상장 / 상금 150만원
금상	1명 상장 / 상금 80만원
은상	2명 상장 / 상금 각 50만원
동상	2명 상장 / 상금 각 30만원

입상작발표

- ▶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홈페이지 <www.dalseo.or.kr> '공지사항'에 10월 21일(수) 발표 (개별통보 없음)

시상식

- ▶ 2020년 10월 26일(월) 18:30 '푸른방송'

문의

- ▶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TEL 053)554-4800

| 주최 |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 후원 | 달서구·달서구의회 ·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푸른방송(주) · 푸른신문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160 별관2F TEL:(053)554-4800 FAX:(053)553-4800

<본 공모전은 시비, 구비를 지원받아 개최합니다.>

지역

현풍에 부는 훈풍

제일풍경채, 일동미라주더파크 주민 사랑나눔 헌혈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헌혈자마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나 군부대를 통한 단체 헌혈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달성군 현풍읍의 아파트 주민들이 나섰다.

평균연령 34.1세로 대구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알려진 테크노폴리스 지역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더파크 아파트(임주자 대표 정준호) 입주민들이 지난달 14일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서 제일풍경채 아파트(주민대표회의 대표 이상진) 입



제일풍경채 주민 사랑나눔 헌혈

주민들은 지난 9월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주민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진행된 이번 헌혈은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면서 진행됐다. 현풍, 유가 등 테크노폴리스 지역 아파트는 평소에도 아파트 주민간 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돈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주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행사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

이상진 대표는 “회의에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지만 주민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줄 미처 생각 못했는데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헌혈을 통한 작은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일동미라주더파크 입주민 사랑나눔 헌혈

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주민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준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헌혈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주민들

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번져 나가기를 기대한다.

헌혈 나눔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진행했다. 단체헌혈에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나 단체는 대구경북혈액원 ☎605-5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점식 기자



* 입면 녹화 식물: 다양한 수종의 형태, 색채, 질감 등을 이용해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공기 정화 작용으로 잘 알려진 식물들 사용에 공기 속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CO), 포름알데하이드(HCHO),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이산화탄소(CO2) 등 유해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

실내가 녹색 숲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자연가(家)득 입면녹화

달서구는(구청장 이태훈)은 9월 7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 공기정화식물을 장식하는 '자연가(家)득' 입면녹화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로 로비 벽면과 와룡로 로비 기둥에 호야, 스킨답서스 등 7종, 1,960포트의 공기정화 식물 입면녹화를 조성해 쾌적한 실내

환경과 녹색공간으로 꾸몄다. 식물의 장점을 극대화한 식물 공기정화 시스템 구축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일산화탄소 감소 등 실내공기 정화, 산소 공급과 식물의 증산 작용을 통한 가습효과까지 누릴 것으로 보인다.

'자연가(家)득'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입면녹화,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달서구는 올해 초 '자연가(家)득' 사업에 응모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응답성 _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시성 _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_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카탈로그성 _ 쇼핑안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_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집 라인(Line) 플러스’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고독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통상 3일 이후)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을 말한다.

지난해 대구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반콘네트웍스가 지난해 공개한 대구시 구·군별 무연고 사망자 집계 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무려 636명이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전체 고독사의 일부분만 반영한 수치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고독사 사망자 중 연구자가 있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실제 고독사 발생 건수는 무연고 사망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개인주의로 인한 비혼·미혼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실직과 퇴직,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

로만 치부할 수 없기에 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 않게 지자체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중앙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모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고독사 예방사업에 앞장서게 됐다. 전국에서 1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대구에서는 상인종합사회복지관도 함께 선정됐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부터 월성주공 2단지(2,364세대)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9월 현재 고위험 가구 총 24가구를 발굴했다.

‘집 라인(Line) 플러스’라



집 라인 업무 협약식

고 이름 붙여진 이번 사업의 핵심은 선정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정기적인 안부전화, 안부방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헬퍼, 이웃들을 하나로 묶는 집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월성주공 2단지에 대한 오래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송정준 관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중요한 사회문제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의 시범 사업 후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3-634-7230

서순옥 객원기자

달성군, 도로명주소 불편 개선 추진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도로명주소 불편 개선을 위한 현풍읍 부리 ‘성장빌라(총 11동)’ 다세대주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변경 고시했다.

성장빌라는 실제 사용하는 동·호수가 건축물대장, 등기

부등본의 동·호수와 일치하지 않아 전입신고·금융업무 관련 등 입주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해 11월 도로명주소 불편 개선 추진계획 수립 후 입주자 간담회 등

을 거쳐 성장빌라에 거주하는 각 가구를 방문해 전체 주소 사용자 88명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로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외관과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사진 출처 네이버

되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전통주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재훈 객원기자

달서구 도원지에서 생후 6주 된 새끼수달 구조



지난 8일 달서구 도원지에서 천연기념물 제 330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수달은 성체가 아니고 생후 6주된 새끼수달이다.

도원지 옆 경작지 수풀에서 수달을 본 시민이 119 구조대에 신고했고 이렇게 구조된 새끼수달은 달서구청이 인계받아 현재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영양제 등을 맞으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새끼수달이 구조된 도원지 인근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수달 2마리가 발견됐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다 큰 수달이었기 때문에 달서구청은 당시 별도의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견된 새끼수달은 지난해 발견된 수달의 새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 그냥 두었으면 어미가 데려 갔을 수도 있는데 구조 활동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 건 아닌지 달서구청 환경보호과에 문의해 보았다. 건강한 상태면 구조를 안 하는데 발견 당시 야기수달은 완전 탈진상태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구조하게 됐다고 한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건강해져서 몇 달 만에 다시 도원

지로 돌아갔을 때 부모수달은 과연 새끼수달을 알아볼 수 있을까? 담당자는 수달서식지 용역을 준 박사에게 문의해 본 결과 최상위포식자 중 하나인 수달이 새끼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미의 공격에도 충분히 도망가고 자기 방어할 수 있도록 성체가 된 후 방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내년 3월경 방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도원지는 다른 강과 연결되지 않고 주변도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신천에 살던 개체들이 산을 넘어 수발고개로 해서 도원지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한다. 이번에 발견된 새끼수달은 대구시가 기존에 조사한 신천, 금호강 등지에 서식하는 개체수(20마리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개체로 보고 있다고 달서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달서구는 내년 상반기 전으로 수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인공 생태섬을 도원지에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주제로 한 수달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카카오톡으로 선착순 배포했고 대구사랑상품권인 대구행복페이에도 귀여운 수달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래저래 수달은 친환경 대구의 마스코트인 셈이다.

새끼수달이 건강해져서 빨리 어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도원지에서 해업치는 수달가족을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길…

서순옥 객원기자

달성군 겨울에 맛 볼 미나리 파종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화원 미나리단지에서 이달 9일부터 미나리 파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이철수 씨(57) 미나리하우스에서는 미나리 파종(미나리 줄기를 잘라 씨로 사용함)이 한창이다. 이 미나리는 앞으로 추운 겨울을 거쳐 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맛있는 미나리로 식탁에 오르게 된다. 화원 미나리는 비슬산 자락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하 암반수로 키워 친환경적이고 미나리를 키우는 대부분의 농



가가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을 획득해 믿고 먹을 수 있다.

특히, 부드러운면서도 아삭한 식미와 향긋한 품미로 유

명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달성군은 비슬산을 중심으로 화원, 가창, 옥포 등지에서 70여 농가가 20ha 면적에 미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관리·사무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신성산업(주) 053-59-7600	지제·구매·물류 사무원	고졸 이상	연 2,600만 원 이상
대한미디어(주) 053-585-9194	지제·구매 사무원 (화학·생유·의류)	고졸 이상	월 220만 원 이상
(주)유나폴리 053-581-1624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문대졸 이상	연 3,000만 원 이상
(재)대기계부품연구원 053-608-2017	마케팅·광고·홍보·상품 기획 사무원	대졸 이상	연 2,200만 원 이상
부경이앤씨(주) 053-568-0969	경리 사무원	무관	연 2,280만 원 이상
영진산업 053-589-7698	경리 사무원	고졸	월 180만 원 이상

■기술 기능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아이피씨 주식회사 053-589-6200	전자부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고졸 이상	월 250만 원 이상
(주)동한정밀 053-581-1721	마사냥센테(MCT) 조직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마스크로(주) 053-290-2244	공업기계 설치·창비원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100%)
월드폴리머 053-587-7963	금속기공 기계 조직원	무관	연 3,000만 원 이상
신한정공(주) 053-719-6343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직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삼기테크(주) 053-584-0782	CNC 선반 조직원 (NC선반 조직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다우엔지니어링 053-59-3057	금속기공 기계 조직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일성정공 053-589-7416	드릴링기 및 보링기 조직원	고졸 이상	월 250~500만 원 (상여 50%)
(주)공강이앤지 053-59-2018	건설 배관공	고졸	월 250만 원

■단순 생산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식회사 한성알미늄 053-581-7770	제조 단순 종사원	고졸 이상	시급 85,900원 이상
동국철판 053-554-9852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대정 053-59-6861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도양산업 053-581-7632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제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누베스 주식회사 053-615-2060	온라인 판매원	무관	월 200~220만 원 (상여 100%)
(주)네일프라곤 053-588-1902	지게차 운전원	무관	연 2,860만 원 (상여 300%)
도원노인복지센터 053-644-0402	승합차 운전원	무관	시급 85,900원 이상
(주)대륜스틸 053-581-9263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무관	연 2,800만 원 이상
일명정밀 053-592-1717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연 2,600만 원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805-6508 www.worik.go.kr/daeguseobu

이번 추석 ‘하향주’ 어떠세요?

하향주(荷香酒)는 1996년 5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달성군 유가면의 전통술이다. 하향주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중기 무렵 병란으로 비슬산 중턱에 있는 도성암이 불에 소실되어, 신라성덕왕(재위 702~737) 때 도성암을 다시 지으면서 인부들을 위해 토주를 빚기 시작한 것이 하향주의 시초라 한다.

그 후 조선 광해군(재위 1608~1623)때 이곳에 주둔중인 군사들의 장수가 왕에게 이 술을 올려 천하명주라는 칭찬을 받고, 이 지역 특산

품으로 해마다 진상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조선 중기부터 달성군 유가읍 음리에 세거한 밀양 박씨 문중에서 가양주로 전승되어 내려오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필순 여사의 아들인 박환희씨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향주는 술에서 연꽃 향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연꽃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며, 찹쌀과 쌀을 주재료로 사용해서 빚는 발효주로 누룩과 약재 외에는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술에서 꽃이나 과실향

이 나는 것이 하향주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옛 문헌인 ‘동의보감 약방편’과 ‘방약합편 약리작용’에 의하면 ‘하향주는 독이 없으며 열과 풍을 제거하고 두통을 치료하며 눈에 찌뚱을 없애고 눈물 나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하향주는 역사 깊은 전통주이자 약주(藥酒)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대구 무형문화재 제11호 하향주가 잘 보전 계승

나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울해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산량이 연간 3백 톤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이른 생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산량이 연간 3백 톤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이른 생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산량이 연간 3백 톤에 이른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재 미 를 담 다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CCTV 관제요원 신고로 절도용의자 검거

달성군, 1천 600여대 CCTV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의 신고로 차량털이범 절도용의자가 붙잡혔다.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 이모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2분경 논공중앙시장 부근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차량 내부에 있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시 피형의자의 행동을 수상한 여겨

곧바로 112에 신고 후 주변 CCTV를 탐색해 용의자의 경로를 파악해 출동한 경찰이 피형의자를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달성군 CCTV 관제센터는 현재 1천 600여대의 CCTV가 연계되어 있으며, 34명의 관제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즉각 112와 119에 신고해 각종 범죄 및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달성군 통합관제센터 관계



자는 “달성군 CCTV 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절도 및 폭행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CCTV 확충 및 안전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달성군을 만

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비대면 똑똑한 건강관리

달성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달성군보건소(소장 박미영)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달성군 건강증진센터(옥포읍 비슬로 458길 6-2)에서 사전예약제로 선정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

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등 전담팀을 구성해 6개월간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습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달성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방역당국의 대응지침에 따라 비접촉 안면인식 열체크, QR체크인, 손소독, 마스크 착용, 상담데이블에 투명 가림막 설치, 청사 내 창문 환

기, 공기청정기 가동, 대상자 방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달성군보건소는 2017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추진전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대응 행에 따라 일상의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시민들



의 피로감 누적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8일부터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정검사를

하고 있으며, 목표인원 도달까지 희망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053-668-3839

<자료제공·달성군보건소>

달성군,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표창

여성친화도시 현판식도 개최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20년 양성평등주간(9. 1~9. 7)을 맞아 9월 9일 달성군청에서 김문오 군수, 이호연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표창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실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 날 표창 수여는 코로나 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에 따라 해마다 개최했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간소하게 진행했다. 수상자는 여성권의 신장과 양성 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여성단체 우수회원 7

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이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인증하는 현판 전달식도 진행됐다. 달성군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맺고 5년간 여성과 가족을 비롯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오 군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성 평등사회 실현과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는 도시기반시설과 공



공이용시설 등 각종 사업의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달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회장은 “매년 개최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를 추진하지 못했으나, 표창 수여를 통해 이번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성 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발’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정책 과정에 양성성이 평등하게 참여하

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정책도시를 말한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요트원정대

YACHT EXPEDITION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2020.08.19. (수) 밤 9시 30분 첫방송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내 손 안의 즐거움

"Fun Again!"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메이저리그 독점중계!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월광수변공원 천연기념물 수달 가족 보금자리

결혼친화도시 달서 수달 커플1호 탄생
달서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0억 원 확보

결혼친화도시를 선포한 (‘18. 9. 6) 달서구에 있는 도원지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 커플1호가 탄생했다. 지난 8월 아기 수달(생후 6주 정도 추정)까지 발견되어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달서구는 지난해 8월 도원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달이 최초 발견된 이후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 수달 보호 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수달 커플 탄생에 이어 아기 수달까지 얻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기 수달이 발견되던 지난 8월, 달서구는 환경부로부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태복원사업에 큰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 수달이 도원지에서 자주 출몰한다는 주민제보를 근거로 수달보금자리와 먹이 활동공간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서 도원지, 진천천, 달성습지를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환경부에 공모하였고,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 사업은 21~22년 2년에 걸쳐 5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달서구는 그 사이라도 멸종위기종인 수달 가족이 들고양이 등 타 개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도원지에 안전 보금자리(인공생태섬) 설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원지 서편 순환산책로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0.8km 산책로와 휴게쉼터를 조성해 자연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주

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월광수변공원 일대를 결혼데마공원, 문화공연광장, 병풍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도원지 수달마를 주민과 월광수변공원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모 79면(3,509㎡) 월광주차장을 새로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도원지에 천연기념물인 수달가족이 곁을 이루어 새로운 아기를 출산한 것은 결혼친화도시 달서구의 축복으로, 도원지를 품은 월



광수변공원이 전국의 청춘 남녀에게 새로운 명소로 알려질 바란다. 또한 인공생태섬을 10월중에 조성하고, 달서구의 생태자산을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다양한 생명이 숨쉬는 여가·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이미지치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이미지치과(원장 지진우)는 지난 10일 달서구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미지치과는 2017년부터 의료협약을 통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들니, 보철 등 무료로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백미, 라면 등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무소유의 소유자 ‘법정 스님 이야기’

오랜 시간 오해를 했었다. 무소유의 의미들. 그리고 법정 스님의 진심을. 라디오에서 우연히 법정 스님을 소개하는 어느 정갈한 스님의 목소리에 흘러서 고가를 지불하고 법정 스님의 문고판 무소유를 구입했다. 절판된 책이어서 중고서적을 뒤져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짧은 산문으로 구성된 작은 책에는 꾸밈없는 삶의 이야기가 단아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필자가 오해하고 있었다.

막연히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절에 살면서 책을 출판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무소유를 부르짖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그의 인기를 비웃곤 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는 것, 그것이 무소유 본질이었었던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다. 무소유에 대한 스님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스님이 고가의 난을 선물 받자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방의 난방 온도를 높일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여행을 간다든지 불일이 생겨도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 그 일상에서 스님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무엇에 얽매인다는 것, 또 다른 구속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 난초를 담은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안겨주고는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나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3년이나 정든 난을 떠나보내면서도 서운하고 허전함 보다는 활기분함이 앞섰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갈등했을까.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버린다.”

그 후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로 마음먹은 스님은 임종에 이르러서는 관도 짜지 말고 수도도 마다하시고 승복을 입은 채 다비식만 간소하게 치러 달라고 하셨다 한다. 심지어 사리도 수습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니 법정 스님은 죽어서까지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진정한 무소유의 자연으로 돌아가시길 원했다 보다.

요즈음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문고판 표지와 고뇌하는 법정 스님

무소유가 미니멀 라이프의 원조가 아니었을까? 어리석은 필자의 오해도 풀 겸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스님이 기거하신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떠나고 싶다. 순천 송광사와 인혁당 사건 이후 도피처로 삼았던 불일암과 시주를 받아서 창건했다는 서울의 길상사에 들러 무소유의 향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윤영 객원기자

성공의 열쇠!

푸른방송 TV광고입니다.

방송광고 하나로 지역신문, SNS광고까지
모든 광고를 한번에 누리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
이제, 푸른방송과 함께 실속있고 합리적으로 광고하세요.



우리지역 채널 No.1 푸른방송 Ch.1
053) 551-2000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
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
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진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 (중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샌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 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강적들이 뭉쳤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일요일 밤 7:40



모든 집에는 주인장도 모르는 물건들이 산다?
언젠가 쓸 거 같아서... 버려져나 아까워서...
판자니 귀찮아서...?
당신의 집에 잠든 물건,
'유랑미켓'이 대신 알아드립니다.
스타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통해 주인과 직거래하며
이웃과의 훈훈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
잠든 물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50분

악의 꽃이란?
14년간 사랑해 온 남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연쇄살인마
로 의심된다면?
사랑마저 연기한 남자 희성과 그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
한 아내 지원.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앞에 마주 선 두 사람의 고밀도 감성
추적극이 시작된다.

한 부부가 있다.
두 사람은 14년 전에 만나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했고 결
혼을 했다.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 아래에는 비밀과 거짓말, 잠자
고 있는 진실이 몸을 웅크리고 있다. 어쩌면 사랑은 무지
에서 태어나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의
믿음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믿음의 강도만큼 배신감이 뒤따르고 진실의 강도만큼 고
통이 뒤따를 테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 (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레미 집 없는 아이

인생 연도와 함께 꿈과 가족
을 찾아 떠난 소년의 아주 특별
한 여행!
거듭되는 시련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하
던 레미는 어느 날 자신의 출생
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단서
를 알게 되는데...
과연, 레미는 자신의 진짜 가
족을 찾을 수 있을까?



언더워터

해저 11km, 한 번도 경험하
지 못한 무언가 깨어났다.
어두운 심해에 무언가 그들
을 바짝 따라오고 있다. 불가
사의 한 포식자와 쫓고 쫓기는
위험천만한 게임에 갇혀버린
대원들. 살아남기 위해선 남은
용기를 전부 주어 싸워야만 한
다. 살고 싶다면 모든 감각을
깨워라!



시청방법 ▶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내 관문 통과

2021년 1월말까지 등재신청서 최종본 유네스코 제출
2022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 최종결정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 한 경·남북과 전북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은 9월 10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함안 말미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함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창녕 고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13년부터 시작

됐다. 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2019년 3월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등재신청 후보로 가결되었으나, 같은 해 7월 등재신청 후보 조건부 해소 심의에 부결되어 등재신청 후보 선정이 보류된 바 있다.

등재추진단에서는 당시 제시됐던 3가지 조건인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전문가 참여 △비교연구 재작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등재추진단내 연구팀을 보강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비교심화 연구에 주력한 결과, 지난 5월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다. 그리고 7월말 최종등재신청 대상 선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이 제시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리적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단은 4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등재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결과, 최종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는 유

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전문가 검토 후 등재 권고 있어야 등재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기준(OUV·완전성·진정성·보존관리 등)을 제시하여 이해하기 쉬운 완벽한 논리와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제 ‘가야고분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9월말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영문 초안 제출 후 내년 1월말까지 영문 최종

본을 제출하게 되고,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2022년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광용환 군수는 “가야고분군은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 증거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고령군, 월평균 전기료 5만 원 절약

고령군(군수 광용환)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가 주관 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주택 및 건물에 설치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공모사업이며, 고령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개평가 및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령군은 총사업비 59억 원(2020년 30억, 2021년 29억)을 투입해 태양광 48개소, 태양열 82개소, 지열 59개소 등 총624개소(2020년 29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초에 태양광을 설치한 마을 주민들의 경우 매달 5~6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달에는 기본요금 정도만 부과되어 월 평균 5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있어 고령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성주군 ‘성주형 뉴딜사업’으로 뉴스타트

48개 사업, 1조 2천억 원 ‘성주형 뉴딜’ 추진
사업추진단 구성, 당장 시행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 추진

성주군은 현재 성주읍 중심부를 기점으로 35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1단계 사업이 한창이다. 곧 2단계도 시행한다.

각 읍면 전역에는 어벤저스급 청소년·방역단이 출동해 코로나시대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성주만들기’ 그린 뉴딜 사업이 한창이다. 바로 일지리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환경으로 변신을 위한 성주형 뉴딜사업이다.

성주군은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세부 추진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 정책방향과 군 실정에 부합하는 4개 분야, 48개 사업,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성주형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주형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에 18건, 그린 뉴딜에 16건, 안전망 강화사업 3건, 지역뉴딜 사업 11건을 발굴했

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4개반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 당장 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2025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사업에는 디지털 뉴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디지털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첨단 감시장비

운영사업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며, 그린뉴딜에는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치시설 지원사업 등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

도화사업 등이다. 특히, 지역뉴딜 핵심사업으로는 ▲깨끗한 성주만들기 사업을 포함하여, 군유지 일원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남면 골프장 조성사업, 성주읍 중심하천에 ▲별빛이 흐르는 이천전환경 조성사업 ▲성주읍 도시재생 1·2단계 뉴딜사업 ▲친환경 신시가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 건설 등 총11개 사업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주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선남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들어선다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억 원 확보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1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남면 관화리 일원에 2023년까지 총 80억 원의 사

업비로 체육관, 헬스장, 운동처방실 등 기본시설과 다목적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하며, 현재 추진 중인 18억 원 규모의 생활문화센터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성주군을 비롯한 전국 4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선남면은 성주군에서 처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대구광역시와도 가까워 도로·대중교통여

건이 우수하고 특히, 선남생활체육공원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활성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우수한 전통 취미공예

한지공예 생활가구반 개강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성주사람들 이야기관에서 한지공예 생활가구반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성주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분야별 전문가 육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며,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회에 걸쳐 추진한다.

한지공예는 오방색(적, 청, 황, 백, 흑)등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색을 물들인 색지로 치장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오색한지공예와 오래된 느낌을 주는 탈색지를 활용해 한지 고유의 색과 문양을 정교하게 작품화 시키는 고색한지공예

로 9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회에 걸쳐 추진한다. 한지공예는 오방색(적, 청, 황, 백, 흑)등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색을 물들인 색지로 치장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오색한지공예와 오래된 느낌을 주는 탈색지를 활용해 한지 고유의 색과 문양을 정교하게 작품화 시키는 고색한지공예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북 서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광희)와 경북 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수진 스님)은 9월 성주문화예술회관 종합교육장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매년 증가하는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해 사례 발굴 및 관리, 인권보호 교육, 즉각적인 대응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인관련 전반적인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천시에 소재한 경북 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성주

를 포함한 7개시군(김천, 구미, 경산, 칠곡, 군위, 고령)을 관할하는 거점기관으로서 노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례관리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도광희 센터장은 “관내 어

르신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되어 한층 더 앞서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유튜브에서 ‘가야금 뮤지컬’ 만나.

집에서 즐기는 고품격 문화

유튜브 채널 ‘HI STORY 경북’을 통해 고령군 가야금뮤지컬 ‘사랑 다른 사랑’을 집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가야금밴드 ‘사랑 다른 사랑’은 경북 문화기행 ‘HI! STORY 경북’의 가야권 지역연계사업 ‘디스커버리 가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주최하고, 고령군과 한국국악협회 고령군지부가 주관한 문화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13일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우복홀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 공연을 최고수준의 방송영상 장비와 음향 레코딩, 믹싱을 통해 고품질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해당공연은 지난 3월부터 2017년에 개발된 국악장르 공연에 뮤지컬 요소를 가미하여 리뉴얼한 것으로 한 시간 동안 가야금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퍼커션 등 다양한 음악요소가 결합된 고품격 뮤지컬이다. 이번 뮤지컬에는 가야금 등의 연주자와 다양한 극에서 활동한 뮤지컬배우가 다수 참여했다. 가야국의 명량 시기에 문화적 통치를 꿈꿨던 가실왕과 우륵이 ‘가야금에 담아 전하고자 했던 음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한 상상을 담았다.

특히 시즌1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이 공연 관람 후 음악을 다시 듣고 싶다는 수요를 감안하여 OST를 제작하였고, 현재 음원스트리밍서비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지역사랑 파트너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종독 농아버섯백숙
 농아버섯오리백숙 ₩55,000
 농아버섯닭백숙 ₩50,000
 농아버섯곰탕 ₩110,000
 농아버섯계탕 ₩12,000
 T.635-3434

기타(타구)지역

가정에서
친파 커피를 만나다
카페 투다트 알콩산점
 대구시 파계로 596 053.981.1359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

기타

Q 24시
 타미, 아로마 마사지
 T.(053)636-5238
 달서구 상인사로 20 (4층)
 (구. 삼인나이트 건너편)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

중고물품 판매합니다.
 전집(전매, 명작 등), 인형, 장난감
 다수 보유, 가격조절 / 직접방문필!
 문의: 010-3424-8523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진로코칭북
**두근두근,
꿈과 마주하기**
 상담코칭센터 인투커리어 070-4306-1201

생민가 참숯가마
참숯 생삼겹살 맛집
 생민가 숯가마
 ☎ 053.852.0035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86-8

산골장어 · 아나고 전문점
새기장아라고
 ☎ 053. 586. 9988
 달성군 다사읍 세전리 1599-1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더욱 **‘따뜻한 봉사’**
 터미널 무료급식(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및 물품 후원 조동철 이사장 010-9195-1878

인터넷 쇼핑몰 “레드방”
 저렴한 가격,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070-8911-7711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63 1층

공간과 사람들 건축/인테리어전문
 010.2902.3097

우리 동네 구석구석,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 4
 우리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제보 및 가입 A/S 551-2000

H 현대해상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일자리 찾기 힘든 대구의 환경속에서 남겨놓은, 경력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업무** : 현대해상평 방송 시청 후 보험상담신청 고객에게 관련 상품 안내후
 가입진행
 • **근무조건** : 09:20~18:30 (주5일) / 점심시간 70분 / 간식시간 30분
 • **수당**
 1. 실적별 기본급+성과수당(인센티브)
 2. 보너스수당(2개월마다)
 3. 유차관리수당 4. 장기활동수당 5. 각종시책
 ※ 현재 근무중인 상담원 60여명 월평균급여 250~300만원
 (상위권 500만원이상)
 • **모집연령** : 20세~60세(남여불문)
 • **정착지원금** : 1차월~3차월 최저보장 각 100원 지급
 - 배우고 정착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 **근무장소** : 대명동 남대구우체국빌딩 11층(교대역 2번출구)
 ★ 면접참석시 교통비 10,000원 지급 ★ 교육 기간 중 중식제공
 ★ 입사확정시 상품권 50,000원 지급 면접일정 등 기타 상세문은 전화주세요~
 문의 : 053-717-6062 / 010-8293-3788

취사 가능한 펜션형 모텔
 거제 남부 관광명소 최적의 위치
| 파타야 모텔
 예약 055) 633-2340
 010.2598.5196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2길1-1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상영시간
 1회 19:00
 2회 21:10
 3회 23:10
 www.cine80.co.kr
 문의 : 984-8008



꿈, 추억 그리고 희망

대구에서 30분!!

엄마, 아빠 추억속으로 ...

성주 추억 박물관으로 초대합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주중 특별할인

30% → 50%

30명 이상 단체 (평일 기준)
 24개월 미만 무료
 일반문의 : 054-932-5800
 단체 문의·예약 : 010-7669-2220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718-1

성주 추억박물관에서 엄마, 아빠의 추억을 나눠요!!

- 곤충전시관 / 만화, 비디오 / 추억의 오락실
- 추억전시관 / 체험관 / 미니카트랙 / 피규어전시
- 추억의 갤러리 / 엄마, 아빠 어렸을적 추억교실
- 추억의 농기구 전시관 / 기차체험 / 추억 농장 : 토끼네집, 염소네집

※ 영입배상책임보험 가입

미리 가는 타이베이 ‘먹방 자유여행’

코로나가 끝나고, 각국의 입국이 허락되고 격리가 없어지면 나는 타이베이로 자유여행을 떠날 작정이다. 각국에서 여행을 제한하고, 외국행 비행기 값은 급등하고 가더라도 격리를 해야 하는 지금은 언감생심 방법이 없지만 속에 천불나는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미리 꿈이라도 꾸 봐야겠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먼저 저가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뒤질 것이다. 적당한 날짜를 잡아 할값의 비행기를 사야한다. 잘만 고르면 정말 제주도 왕복보다 싼 비행기를 얻을 수 있다. 가져갈 짐도 많이 없으니 짐의 무게도 최소화해서 비행기를 예약한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돌아올 때 불금을 사서 쓸 수 있으니 돌아오는 비행기는 짐 값이 포함된 것으로 미리 예약한다.

첫째 날

한밤중에 출발하는 저가 항공을 예약해서 도착하면 밤 12시가 넘지만 걱정이 없다. 미리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해 뒀고 또 공항 픽업도 미리 예약해 뒀기 때문이다. 집을 찾아 나오면 내 이름을 들고 있는 기사분을 만날 것이고 나는 그를 따라 호텔까지 가면 된다. 몇 마디 중국어를 하면 최고요, 영어를 하면 다행이요 말을 못한들 문제가 없다.

호텔은 타이베이역이나 ‘시먼딩’ (타이베이 시내 변화가) 주위에 적당한 것을 예약해두면 된다. 새벽 2~3시경 도착해서 한 숨 자고 슬슬 놀러 나간다. 먼저 요기를 해야 하니 오랫동안 먹고 싶



용강제에 있는 ‘스무시 빙수’

있던 ‘우육면’ 가게가 있는 ‘용강제’로 간다. 이곳에는 많은 맛집이 있는데 먼저 소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우육면’을 먹는다. 아! 시원한 국물맛과 한 달은 안 먹어도 될 만큼 질리도록 듬뿍 들어있는 소고기! 지금도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우육면’ 집에서 나오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무시’ 빙수집으로 향한다. 엄청난 양의 망고 그리고 싼 가격, 벌써 감동이 밀려온다. 아 나는 대만음식이 너무 좋다. 빙수집에서 나와 ‘용강제’ 입구에 있는 ‘선베리 제과점’에 들어간다. 이제 더 이상 음식 들어갈 배는 없지만 다시 여기로 오는 것은 시간 상 힘드니 ‘선베리’에서 파인애플 과자 ‘핑리수’를 산다. 물론 타이베이 최고의 집은 ‘차이더’이지만 일부러 가기 싫어 이 집에서 사기로 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아차! 큰길가에 있는 최고의 ‘덤섬’ 집 ‘딩타이광’을 깜빡했다. 여기까지 와서 안 먹을 순 없는 법, 줄을 서서 기다리다 ‘샤오통빠오’, ‘샤오마이’를 포장한다. 배는 부르고 날은 덥지만 그래도 너무 흐트하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목에 타이베이에 지천으로 깔린 ‘세븐일레븐’이나 ‘페밀리마트’에서 ‘대만 맥주’를 사서 호텔로 들어간다. 저녁 쯤 체중조절이라는 스트레스 속에서 포장한 딤섬과 대만맥주로 배를 채운다. 머리에 걱정이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둘째 날

자유여행의 묘미는 늦잠! 비록 낮이 덥긴 해도 에어컨이 원래 잘 돌아가는 나라이니 일단 9시가 넘어 일어난다. 샤워를 하고 오늘도 맛집을 향해 출발한다.

대만전철인 ‘지에원’을 타고 타이베이 최고의 콩국집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푸항또우장’으로 향한다. (또우장은 우리나라의 콩국과 흡사한데 약간의 맛 차이가 있고 타이베이에는 냉콩국이 있어 이것이 또한 별미이다) 아나니 다들가 이 시간에도 약간의 줄이 있다. 뭐 어차피 작정한 일, 오늘은 그래도 줄이 짧아 10여분 만에 주문을 한다. ‘뽕또우장’ (냉콩국)과 ‘뽕뽕’ (계란과 밀가루로 만듦), 그리고 ‘샤오방’ (호떡 같은 빵 안에 각종 소가 들어있음)을 시켜서 먹는다. 냉콩국은 우리나라의 콩국과는 다른데 정말 별미이다. 대



소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우육면 (나우루우면)’

만족이다.

오후에는 변화가인 ‘시먼딩’으로 이동 길거리에서 간식으로 ‘지파이’ (닭튀김)를 먹는다. 젊은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웬지 섬섬해서 하나 정도 먹는다. 이어서 엄청난 크기의 ‘연어초밥’으로 유명한 ‘삼미식당’에 가려다(개인적으로 연어를 좋아하지 않음) ‘니우파이’를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간다. 니우파이는 소고기 스테이크인데 철판에 올려주는 그 맛이 가히 일품이다.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이 없지만 니우파이는 강추하는 음식이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칼질을 끝내고 이제 ‘쓰린 야시장’으로 향한다.

야시장 골목마다 정말 먹을 것이 많지만 일단 소화를 위해 시장 구경을 싣것 하고 ‘치즈감자’, ‘취두부’, ‘과일 음료’ 등을 영점한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대만맥주 몇 캔과 ‘엔수지’ (각종 튀김요리, 길에서 주로 팔고 지금은 그 수가 줄었지만 맥주 안주로는 최고종 하나이다)를 사서 들어온다. 맥주를 마시면서 가보지 못한 맛집을 떠돌아다니는 재미도 너무 많다. 안타깝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번 여행을 정리한다.

셋째 날

오후 비행기 시간에 맞춰 호텔 체크인아웃을 하고 타이베이 시내 곳곳을 다니는 ‘국광호’ 버스를 타고 ‘타오위안’ 공항으로 간다. 조금 일찍 공항으로 가서 공항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한다. 나는 또 한 번 ‘우육면’을 먹으면서 이번 여행을 정리한다. 가자. 우리나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 빼서 또 오자! 다짐은 현실이 되리라!!!!

구남균 객원기자

동성로 친절여행상점을 추천해 주세요.

10월 5일까지 온라인 투표 통해 우수 가게 20곳 선정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성로를 쇼핑 관광 자원으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친절여행상점 선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구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동성로는 최신의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과 액세서리, 화장품, 잡화 등 쇼핑관광의 대표적인 관광지지만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동성로에 대한 관광

러지고 맛집, 카페, 체험시설 등이 밀집해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구의 대표 관광지다.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동성로에 대한 관광

홍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동성로 일대 좋은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이는 쇼핑상점,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우수한 가게 20곳을 선정한다.

예선투표는 이달 21일까지 동성로에 위치한 모든 상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예선은

통과한 상점들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소정의 다양한 모바일 상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관광 홈페이지(https://tour.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이원욱 객원기자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집중 살펴

대구는 14일 오후 2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공동의장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를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발맞추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발 재확산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 전망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우선, ‘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1.3~2.2%의 이차차액을 재보전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 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 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되어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 자체 통계에 따르면, 1년

만기 대출 만기연장비용이 약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많은 지역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현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로, 대구시는 그간 공제기금 대출 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현재 연간 4,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며,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 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300억 원(125개사)에서 2,600억 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하는

등 기업경영활동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①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②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③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고용유지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지원비율 상향 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4~9월→4~12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④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추석 맞아 대구 약령물 특별할인전

10월 4일까지
한방제품 최대 50% 할인 및 전국 무료배송

대구약령시 한방제품 특화몰인 ‘동대구역 메디시티대구 명품브랜드 판매장’ (이하 메디시티대구 판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대구약령물’ (이하 약령물)에서 우수·인기 한방제품을 선별해 2020년 추석맞이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메디시티대구 판매장과 약령물(www.dghanbang.com)은 360여 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구약령시를 대표하는 한방제품 온·오프라인 특화몰로서 대구시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대구약령시에서 생산하는 한방건강식품, 한방차, 한방화장품 등 우수·인기 한방제품들을 선별하여 10월 4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약령물에서 주문 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 무료배송 혜택과 함께 회원가입 시 추가 5%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또 평상시에도 메디시티대구 판매장과 약령물에서는 약령시 우수 한방제품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상시 할인 판매 중이다.

한방제품 구매는 동대구역 KTX 4번출구(구맞이방) 메디시티대구 판매장 및 약령물 홈페이지(www.dghanbang.com)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고객센터(053-254-1951)로 하면 된다.

서귀울 대구시 의료산업기반과장은 “대구약령시의 우수 한방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면서, “지역 한방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앞산의 새로운 명소 ‘앞산해넘이전망대’

앞산은 명실상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답게 등산하기에도 좋고 앞산공원전망대, 앞산카페거리 등 관련된 명소도 많다. 최근 이러한 명소가 또 하나 추가됐다. 대구 시가지를 배경으로 한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 지난 8월 14일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바로 남구 앞산 빨래터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앞산해넘이전망대’ 이야기다. 이곳에서는 해가 넘어가는 광경을 볼 수도 있지만 해가 진 뒤에 펼쳐지는 시내 야경 또한 방문객들이 사진으로 남기기에 충분한 뷰를 제공한다.

홀로 이곳을 찾은 정육제(44) 씨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도 혼자 보기에 아까운 야경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산순환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독특하게 생긴 건축물을 발견해 언제가는 가봐야지 하다가 오늘 이렇게 와봤어요. 올라오니가 또 다른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가족들과도 함께 오려고요” 대구 남구에 사는 김지락(59) 씨는 특히 밤에 들어오는 화려한 조명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밤에는 형형색색 불이 들어오는데 몇 초 서지도 않고 색이 계속 변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면적 115 제곱미터의 앞산해넘이전망대는 크게 전망대와 굴곡진 데크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데크길의 경사가 완만하여 유모차나 휠체어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13m 높이의 전망대는 그리 높지 않은 고도 때문에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 근처 앞산 전망대에서 보는 일몰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60여 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전망 타워는 젖은 빨래에 물을 짜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실체한 탓에 의미도 있으면서 재미있는 느낌을 준다. 타워에 오르기 위해서는 288m의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되고 실내에는 냉난방시설이 갖춰져 있다.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이원욱 객원기자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10월 28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 통해 6주간 접수

대구시는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자금의 이자 지원 신청과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자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경북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19년 이후 졸업생(대학원생 제외)이던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3인 이상)가 구 학생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도 발생 이자이며,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상환 연체로 신용유의정보자로 등록된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한국신

용정보원에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등록된 만 39세 이하 대구지역 청년들은 941명이며, 대구시는 이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분할 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실 또는 120달 구별콜센터(☎053-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2016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역 대학생 1만 1,500여 명에게 12억 원 정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또 청년부실채무자 132명의 신용유의정보 해제를 지원해 청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등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이 지역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소방 ‘골목길 안심 소화기’ 화재 시 누구나 사용하세요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화재 발생 시 시민 누구나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지에 ‘골목길 안심 소화기’를 확대 설치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

하기 전 시민 누구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에 ‘골목길 안심 소화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사용법 동영상 제작해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자료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삶의 소중한 마무리

달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달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를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118건의 상담문의와 참여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여 등록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기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김문오 군수는 “소중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좋은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되어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성군보건소〉

학~ 달라지는 별초, 성묘 신평속도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서성환(58) 씨는 집안의 장손이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와 집안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별초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건 큰 연례행사였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마이삭 때 증조부 산소 앞의 대나무가 많이 넘어지고 축대도 일부 허물어져 보수공사도 할 겸 꼭 내려와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 모든 게 어렵게 되었다. 고향을 지키는 먼 친척별되는 사람이 별초대행을 해 주기로 했고 무너진 축대는 벌써 인부를 불러왔으나 아예 내려올 생각을 말라고 하시면서 고향의 노모는 서 씨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서울에 사는 조선형(46) 씨도 지난 주말에 서둘러 성묘를 다녀왔다. 추석에 사람이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 일찍감치 다녀온 것이다. 이처럼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석 별초와 성묘 문화가 확 달라지고 있다.

팔공산 도립사 추모공원은 추석 연휴 때 추모객이 몰려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감염을 피하기 위해 9월 30일~10월 4일까지 추모공원을 아예 폐관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추모공원인 합천 추모공원도 제례실과 예배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합동차례는 지내지 않기로 했다. 모든 방문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음식을 나눠먹는 건 금지하기로 하는 등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한다는 방침이다.

그때도 성묘는 하고 반드시 차례는 지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사전예약을 통해(9월 21일부터) 다음과 같

은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전국 주요 온라인 추모시설 안내
- 추모관 꾸미기(영정, 헌화, 분향, 차례상 등)
- 안치사진 신청(장사시설이 안치사진을제공하는 서비스)
- 온라인 추모, 성묘하기(추모글 작성, 추억하기), 가족, 친지와 SNS 공유 가능

코로나19는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코로나 이후 처음 맞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의 별초, 성묘도 예외가 아니다. 직접 찾아가서 성묘하고 추모해야 한다고 캠페스 고집피우지 말고 신평속도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지내보자.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조상님도 하늘에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서순옥 객원기자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0, 디지털박람회로 전환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B2B 기반 전시회, 해외(온라인)와 국내(현장)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포럼 개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라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0’을 디지털 박람회로 전환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박람회로 선보인다.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20(이하 엑스포)은 당초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같이 위험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행사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사기간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전시회 참관객은 바이어와 기업관계자로 한정하고 일반시민 관람이 제한됨에 따라 예년과 같은 자동차축제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기업은 물론 영국대사관, 오스트리아 대사관 등 해외공관과 협조하여 전시회를 준비하던 엑스코(사장 서장은)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B2B 기반 전시회와 수

출상담화를 연계한 신개념 전시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시회장은 참가기업들을 위한 기본부스로 구성되고 기업은 바이어 상담에 필요한 제품 샘플과 홍보물을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다. 참

가한 기업은 각각의 부스에 마련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게 되고 현장에 방문한 국내 바이어와도 만난다. 엑스코 관계자는 “비록 해외수출상담회가 온라인으로

이뤄지지만, 전시제품 소개, 시연 등 현장감 있는 진행을 통해 변화된 전시문화 정착을 위한 시험무대로서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갯바위 공영주차장 ‘시민행복 양심 주차장’

비대면 방식 운영…자율적 요금 납부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9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팔공산 갯바위 공영주차장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시민행복 양심 주차장’으로 운영한다.

갯바위 공영주차장은 1~5 주차장으로 나뉘 총 350대의 차량을 동시 수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등에 이용

객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 공단이 새롭게 도입하는 ‘시민행복 양심 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을 통해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이용객이 양심적으로 자율수납함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된다.

갯바위 공영주차장에 배치된 주차관리원은 기존의 요금 정산 업무에서 주차안내로 담

당업무가 변경되며 다른 주차관리원들은 시내 혼잡주차장으로 재배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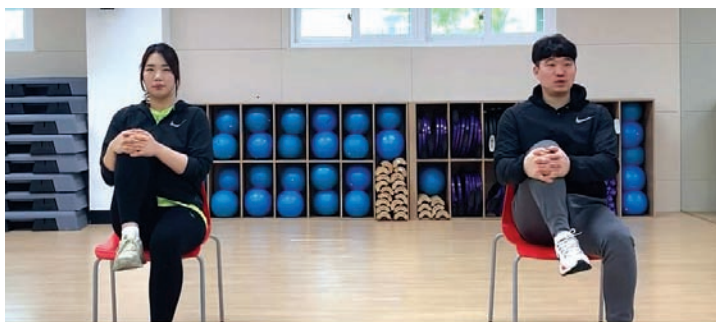
대구시설공단 교통운영처는 많은 행락객이 팔공산을 찾는 가을철에 요금정산에 따른 입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주차관리원 인력 재배치를 통해 주차장 운영 수익과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공영주차장은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이용요금은 시간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동일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대구시설공단 주차관리팀(☎1577-6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대구시설공단〉



달서구 체육회(학생&직장인을 위한백신체조)

위축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집에서 생활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계시장소(링크)

- ▶달서구: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UzF0HfGSHw0wn_gnnNQ)
- ▶달성군: 체육회 홈페이지(http://www.ds7330.or.kr/contents/main/main.html)

내 고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134. 박곡리 학우재와 고 이소선 여사

1) 프롤로그

지난번에 다사읍 달천리[달래] 청주양씨 재실 목정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달천리 이웃 마을인 박곡리에 있는 학우재에 대해 알아보자. 박곡리는 300~400년 내력의 동래정씨 집성촌이다. 박곡[박실마]를 주신인 박산과 마을에 있는 재실 학우재에는 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

2) 박이 물에 떠 있는 형국, 박산

포항 가사령에서 시작된 금호강은 서쪽으로 흘러 영천·하양·경산을 지나 대구 동쪽 접경인 방촌에 이른다. 여기서부터 대구 북쪽을 동에서 서로 끝까지 흘러 달성군 강창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총길이 118km인 금호강은 신천과 더불어 대구의 젖줄이자 명당수다. 청계천을 서울의 내명당수, 한강을 외명당수라 하듯, 신천은 대구의 내명당수, 금호강은 외명당수에 해당한다. 금호강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달성군 다사읍 금호강 유역은 금호강 전체를 놓고 볼 때 강 유역이 가장 넓다. 지금처럼 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여름철 큰물이 들면 다사읍 일대는 매번 물바다가 됐다. 그래서일까. 이 일대를 특별히 금호강 호수, 금호(琴湖)라 했다.

박산(朴山)이란 산 이름도 금호와 관련 있다. 여름철 큰물이 들면 박곡리 일대가 모두 금호강 물에 잠겼는데 박곡리 뒷산인 박산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것. 그 모양이 마치 물에 떠 있는 박을 닮았다하여 박산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3) 동래정씨 집성촌 박곡과 학우재

다사읍 일원에는 예로부터 동래정씨 집성촌이 여럿 있었다. 다사읍 연화·박곡·세천·문양 등이다. 이들 다사읍에 세거한 동래정씨 문중은 대부분 동래정씨 동평군과 계통이다. 동평군정종(鄭種)은 동래정씨 14세로 자는 묘부, 호는 오로재(吾老齋), 시호는 양평이다. 무고출신으로 단종 때 이징옥의 난, 세조 때 이시애의 난 등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에 올랐던 인물이다. 만년에 지금의 고령 덕곡 땅에 오로재를 짓고 여생을 보냈다. 다

사지역 동래정씨문중은 서로 간에 지파는 달라도 대부분 정종의 후손이다.

박곡리 동래정씨 임창조는 정종의 5세손인 이현(伊軒) 정휘의 아들 금암 정천한으로 알려져 있다. 낙제 서사원 선생 연보에 의하면 정휘는 순찰사 류영순·판관 김현·모당 손처눌·괴헌 객재겸 등과 교류한 인물로 나타난다. 임창조 정천한의 아들 학우정(學友亭) 정후흥(鄭后興)은 영조조에 무고 급제해 오위장을 지냈으며, 부인은 망우당 객재우 장군의 현손인 곽승의 딸이다.

박곡리 학우재(學友齋)는 정후흥과 그의 아들인 정시상을 기리기 위한 문중 재실로, 정후흥의 증손자인 금현(錦軒) 정상노(鄭尙老)가 세웠다. 정면 4칸, 측면 1.5칸 규모의 홑처마팔작지붕 건물로 전면으로 반 칸 퇴를 두었다. 정면에서 마주 보면 좌측에서부터 2칸 방, 1칸 대청, 1칸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건물은 새로 중수한 건물로 본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문체·담장·뜰 등은 콘크리트로 처리했다. 고풍스런 고가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4)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박곡

현대인들은 문중과 재실에 대해 무관심하다. 세상과 풍속이 변해 문중과 재실 일이 딴 세상 이야기가 돼버린 탓이다. 세상일은 본 바가 있는 만큼만 알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문중 재실이 무엇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하니 문중과 재실 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과거 전통사회에서 문중 재실은 여러 역할을 했다. 마을 회관·학교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경찰서·법원의 역할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박곡리 학우재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통해 문중 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자. 아래 일화는 경향신문에 연재 [2009. 1~12]된 '이소선의 80년, 살아온 이야기'란 글에서 필자가 일부 요약한 것이다. 참고로 고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며, 연재물은 오도엽 시인이 썼다.

이소선은 1929년 겨울 달성군 성서면 감천리에서 아버지 이성조와 어머니 김본이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 나이 4살 때 아버지 이성조는 농민운동과 항일운동을 하다 일본군사들에 의해 학살을 당했다. 그날 이후 3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다 지금의 박곡리로 들어왔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동래정씨 문중에 개가를 했다. 이소선은 어머니가 당신보다 스무 살이나 더 많은 새아버지에게 개가한 일로 어린 나이였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까지 잃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박곡리는 동래정씨 집성촌이다보니 마을주민들이 모두 친척 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래의 언니·오빠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언니·오빠라 부를 수도 없었다. '데려온 하잘 것 없는 자식'이란 딱지가 붙은 탓이었다. 참다못한 그녀는 학우재를 찾았다. 학우재는 정씨문중 재실로 정장이라 불리는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이 재실을 지키며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했다. 이 마을에서는 학우재 정장 어른의 말이 곧 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정씨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풀기위해 학우재에 매달려 있는 중을 쳤다. [키가 작아 돌맹이를 던졌대 그녀는 정장 어른에게 소원 한 가지를 물어달라고 부탁했다. 마을에서 차별 받았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성인 이름을 정씨로 바꿔달라고. 다음날 그녀는 학우재로 불려갔다. "성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이 다르고 차별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정씨들의 잘못이니 사과를 하라. 앞으로는 차별하고 놀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의 어머니 이미 정씨 문중으로 출가를 했으니 너희 식구 모두가 우리 문중 사람들이다" 과연 학우재 정장 어른의 말씀은 법이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박곡마을에서 누구한테나 언니·오빠라 부를 수 있었다.

5) 에필로그

세상은 변하는 법이다. 300~400년 전의 제도와 문화가 복잡 다양해진 현대사회에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는 법.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제도와 문화를 공부하지 않고 등한시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거의 역사·정치·문화·사회 등을 배웠다. 21세기를 살고 있음에도 삼국·고려·조선은 물론이요, 심지어 고조선·청동기·신석기·구석기시대의 문물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는 소중한 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과 100여 년 전 우리네 할아버지들께서 향유했던,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우리네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아무튼 학우재를 통해 고 이소선 여사 스토리와 옛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과 풋풋한 정서를 알 수 있어 다행이다.



박곡리 동래정씨 문중 재실 학우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학우재

목요단상 (木曜斷想)

마스크 역할

마스크가 일상화 된지 8개월이 지나가면서 마스크는 이제 귀찮거나 어색한 물건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필수품이 되었다. 옷을 입지 않고 외출을 할 수 없듯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쉽게 벗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옆에는 웬지 가기가 꺼려지고,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다. 마스크 쓰는 문제로 시비가 붙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 마스크를 쓰는 일이 습관화되다 보니 만성적인 독감의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귀찮아도 써야 되는 물건이 아니라 안 쓰면 안 되는 물건이 되다 보니 얼굴을 장식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색깔이나 디자인, 기능에 있어 다양한 마스크가 등장하더니 이제 각양각색의 마스크

목걸이도 등장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기능성 마스크, 끈이 없는 마스크도 등장했고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투를 위한 투명마스크도 개발되었다. 마스크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응방안도 소개되고 있다. 마스크를 활용한 일러스트 작품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스마일 마스크로 고객을 즐겁게 하는 마트도 소개되었다.

마스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마스크를 우리말로만 쓰는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각양각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스크가 등장할 수도 있다. 마스크는 이렇게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스크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땀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면 마스크가 가져온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스크는 사람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 같고 정을 단절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쓴 채 말을 많이 하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귀가 더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외모보다 내면을 단련하라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마스크에 가려진 진정한 자아는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라는 의미다.

국민연금 Q&A

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의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의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의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민연금 1365



길을 묻고 답하다

올바른 가치관의 중요성



구용회 건양대학교 교수

암벽등반 세계랭킹 1위인 김지인이라는 여자선수가 있다. 그녀는 납자도 하기 힘들고 무서운 암벽등반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처럼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개의 여성이 선호하는 공무원이나 은행원 등의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몸이 근질거려서 하는 일이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행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를 벗어나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 가치관을 가

져야 한다. 누군가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많이 모아서 평평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어서 평평 쓸 수 있어서 좋겠지 만 사기를 쳤기에 결국 교도소에 가거나 전전긍긍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듯 사회의 문화와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가치관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에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가치관이 가장 크고 중요한 선택인 이유는 첫째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에 아무런 기준이 없이 선택하는 사람에 비해 심리적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일관된 기준에 따라 행

동을 하고 선택을 하기에 자기자신의 행동들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줄을 서게 된다. 일정한 방향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결국 가치관은 심리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동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우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대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난 사람을 치었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밤중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갈까, 신고하고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갈까 등 이런저

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직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이 내재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할 필요없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갈등하지 않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지은 죄가 들뚝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죄책감, 사회적 지탄에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평소 올바른 가치관을 마음속에 잘 자리잡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등교 수업 생활은?

우리 모두가 어느덧 워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에서도 등교수업이 조금씩 시행되고 있다.

전교생이 한꺼번에 다 등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구의 경우 일단 3부제 등교를 통해 세 그룹으로 나뉜 학생들이 돌아가며 등교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수업을 신청하여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 인정이 되긴 하나 새 학년 적응을 위해 또 선생님과 대면해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면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 불안감에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맘 편히 아이를 보내는 부모 또한 없을 것이다.

등교 수업을 통해 진급한 학년 공부에 적응력도 기르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코로나19로 바뀐 학교 생활이 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매일 등교 전 참여하는 것인데 등교수업을 하는 원격수업을 하든 모든 학생이 참여대상이다.

자녀의 건강상태를 부모가 매일 아침 실시간 파악하여 등교 가능 여부를 확인받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내 아이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진솔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교 가능'한 학생만 학교로 등교한다는 믿음은 모든 학부모들도 하여금 코로나19의 학교 내 감염의 두려움을 낮추게 한다. 이와 더불어 조급이라도 의심증세가 발견되면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과 상담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쉬는 시간에는 가급적 흐르는

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좋고, 친구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특히나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유일한 시간인 급식시간에는 친구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학교에서만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손을 자주 씻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 등의 생활을 아이가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꾸준히 지켜야 할 수칙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원욱 객원기자

남부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컨설팅 1:1 교육

기록물담당자 눈높이 맞춰 학교별 맞춤형 교육 실시

대구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은 기록물 담당자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상반기부터 9월 현재 컨설팅 요청 학교 5개교에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연구사가 1:1 실무중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목적은 K-에듀파인(업무관리) 기록물 관리 방법,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안내와 실무 처리 시연 및 학교별 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한 기록물관리 업무 역량 향상이다.

학교 담당자는 “집합교육 때와 달리 자세한 질답을 할 수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되고, 교육지원청과 상호 소통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한 1:1 컨설팅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수환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남부교육지원청〉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학교생활’

대구시교육청, 학생참여 예산제 홍보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을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대구 지역 전체 학교에 보급했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 자치 공약 및 학생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학생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

이 주체가 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교육활동으로 올해부터 대구 지역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별 또는 팀별(학생회 또는 동아리단위)로 공의성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제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한 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참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보급한 리플릿에는 학생

참여예산제의 의의, 운영 방안, 주요 활동 사례, Q&A 등을 담고 있다. 2학기에는 학교 참여예산제 학교별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점형 생활문화과장은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학교 참여효능감을 높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을 통해

관리와 함께 책임의식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홍보 리플릿을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들의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자치 문화가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두류도서관, 온라인 제38회 독후감상문발표대회 개최

대구두류도서관(관장 오선화)은 발표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38회 독후감상문발표대회 참가신청자를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학교장 추천과 두류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daegu.go.kr/duryu>)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선정도서 중 한 권을 읽고 독후감상문 원고와 독후감상문 발표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방법은 독후감상문 원

고와 발표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담당자 이메일(yang93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심사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독후감상문과 발표영상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성적우수자를 선정한

다. 대회결과는 10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두류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231-273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두류도서관〉



푸른방송과 함께!

CJ ENM

99%할인!!

푸른방송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지친 고객님을 위하여 CJENM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CJENM 월정액> 첫 달 99%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푸른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 가능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SALE 99%

● 기간 : 8. 20 ~ 9. 30
● 혜택 : <CJENM 무제한 월정액> 신규 가입고객 +3,000원 -> 첫 달 130원

~본 이벤트는 VOD 콘텐츠 제공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이며, 푸른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 고객 중 해당 VOD 구매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리모컨으로 해당 VOD 상품을 직접 구매 또는 고객센터(053-551-2000)를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최초 신규 가입자에 한하며, 자발적 자동 연장 시 적용됩니다.
~예약된 비용 소진 시 이벤트 기간 전 조기종영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및 단체 가입자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푸른방송 공식 SNS에서 다양한 지역소식과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www.gcs.co.kr

053)551-2000

대구오페라하우스, 'DIOA 트레이닝' 성황리 종료

세계무대의 첫 관문 통과한 19명 발표
세계 7개 극장 최종 오디션에 참가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는 지난 8월 10일부터 3주간 진행한 '대구 국제오페라어워드 온라인 오디션 트레이닝'(이하 'DIOA 트레이닝')에서 총 19명을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DIOA 트레이닝'은 지난해 '국내 최초의 오페라 아티스트 마켓'으로 개최돼 화제를 모았던 대구국제오페라어워드(DIOA)의 연장으로, 세계적인 극장의 캐스팅 관계자들과 극장의 오디션을 준비하는 젊은 성악가들을 연결하는 1:1 화상 강의이자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당초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난해에 이어 DIOA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정상 개최가 불가해졌고, 대신 온라인으로 가능한 'DIOA 트레이

닝'을 추진하게 된 것.

이번 'DIOA 트레이닝'에는 독일의 베를린 도이체오퍼, 쾰른극장, 드레스덴 젤퍼오퍼, 도르트문트극장, 오스트리아 빈 슈타츠오퍼, 뫼르비슈 페스티벌, 미국 LA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유수의 8개 극장 관계자 9명이 트레이너로 참여했다.

지원자는 전 세계에서 모두 58명이 신청했으며, 중복 신청이 허용됨에 따라 총 143회에 달하는 트레이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당초보다 일주일 연장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기간 내내 그 열기가 뜨거웠다.

실제로 공식 오디션을 자주 개최하지 않을 뿐더러, 최종 오디션에 지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해외 오페라극장 캐스팅 관계자에게 직접 맞춤형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58명의 참가자 중 19명이 일차 선정된 것으로, 이들은 오는 2021년 4월에서 5월, 각 극장별로 오디션 오 소속 성악가들과 주조역 출연자를 선발하는 최종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며, 이후 결과에 따라 유럽 유명 극장에서 데뷔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극장 주도식 오페라 전문 성악가 양성은 물론, 젊은 성악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오디션스튜디오를 운영해온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성과 또한 돋보였다.

19명의 선발자 중 대구오페라하우스 오디션스튜디오에 소속된 메조소프라노 김현진과 남수지, 베이스 장경욱 등 3명



은 독일 도르트문트 오페라극장과 도이체오퍼 베를린의 소속 가수/오디션스튜디오 최종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것.

특히 지난 2017년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해외극장 진출 오디션을 통해 독일 함부르크극장에 파견된 바 있는 베이스

바리톤 여신영은 <DIOA 트레이닝>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뫼르비슈 오페레타 페스티벌에 정식으로 캐스팅되어 이번 사업의 공식적인 첫 성과로 기록되기도 했다.

<자료제공: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대구과학관 서예진 과학해설사

'전국 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난 8월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2020 전국 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대회'의 본선대회에서 국립대구과학관 서예진 과학해설사가 최우수상인 국립중앙과학관장상을 수상했다.

서예진 과학해설사는 국립

대구과학관의 사이언스 라이브쇼 '공기대포'를 주제로 와류현상과 파스칼의 원리 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관람객 눈높이로 맞춰 흥미롭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전국 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

대회'는 전국의 과학 전문 해설사들이 참여하여 열린 경연을 펼쳤으며 예비 심사를 거쳐 선발된 9명의 과학해설사가 본선에 진출했다.

전국 과학관 상생발전 워크숍과 함께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국립중앙과학관 주최로 열



렸으며 본선대회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자료제공:국립대구과학관>

'대구 법이산 봉수대'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

대구시는 수성구 두산동 산 2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구 법이산 봉수대'를 시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했다.

'대구 법이산 봉수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 시 평면 형태 주형(卍形)의 방호벽과 출입시설 등이 확인돼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바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대구시는 지난번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

치가 있다고 판단해 9월 10일 기념물로 지정하게 됐다.

법이산 봉수에 관한 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와 '증보문헌비고(1908)'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며,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청도군 팔조령 봉수(八助嶺烽燧)'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경산현 성산 봉수(城山烽燧)'(현 수성구 성동)에 일러주는 대웅봉수로 운용되었으며, 그 명칭도 '법이산(法伊山(法耳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구시는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시에 유적의 방호벽과 내부 시설 등을 정비하고 탐방



법이산 봉수 유적

로와 안내관 설치 등 주변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법이산

봉수대'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잘 남아있고 보존할 의미와 가치가 높은 유적이므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잘 보존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지

속적인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지역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연택트 시대, 우리는 산으로 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등산 인구 대폭 증가
대구시, 21일까지 가을맞이 등산로 일제 점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헬스클럽 등 실내운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대폭 증가하는 등산객을 위해 팔공산, 비슬산 등 160개 노선 517km의 등산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걸쳐 시행되면서 5060세대 이외에도 헬스 등 실내운동을 즐기던 젊은 층까지 산행을 즐기는 추세다. 단체로 떠나는 원정 산행은

줄었지만 혼자 산을 찾거나 가족 단위 등산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1~3월까지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이 11만명에서 15만 9,000명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슬산이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산인 것

을 감안하면 비대면을 위해 동네 뒷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최근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노면 파임 등 훼손된 등산로에 대해 이번달 21일까지 일제 점검과 함께 보수를 실시한다.

태풍으로 등산로가 유실되거나 이용에 지장이 될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



둘레길 정비

면정리, 급경사지 목재계단 보수, 안내판 및 편의시설 정비, 등산로 주변 쓰러진 나무 제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명구 대구시 산림복지과장은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안전수칙과 방역지침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중피해를 입은 등산로를 조속히 정비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푸른방송 고객의 즐거운

가전렌탈시대!

상기 제품의 다양한 가전 보유

상담문의 053-551-2000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구강 관리

감염과 구취 예방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과 구취 예방의 일환으로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됨에 따라 스스로 구취(입 냄새)를 느끼거나, 이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구강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진개발원은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8가지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을 제시했다.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은 구강과 관련된 위생 환경에 대한 생활수칙과 구취 제거에 도움이 되는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다.

치솔질 할 때의 위생 환경과 치약 등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치솔질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

기 △치솔, 치약, 칫은 개인별로 사용하기 △치솔 간 간격을 두고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 보통 칫솔을 함께 보관하거나, 치약이나 양치컵을 같이 사용하는데, 가족 간 타액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데, 그 중 85~90%가 구강 내의 요인이다. 혀의 백태, 구강 건조증, 청결하지 않은 구강 위생 상태, 구취를 유

발하는 음식 섭취, 구강질환 등으로 인해 구취가 발생된다.

이와 같은 구강 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5가지 구강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흡연, 음주, 단 음식 피하기 △커피, 차 등 카페인 이 든 음료 줄이기 △불소가 들어 있는 치약 사용하기 △잠자기 전을 포함하여 하루에 2번 이상 칫솔질하기 헹바닥도 깨끗이 닦기 △입 체조하기를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꼼꼼한 구강 관리 실천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지속될 경우는 자각하지 못한 구강질환 있거나, 구강 외적인 전신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구강검진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위해 무엇보다 스스로의 생활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구강은 바이러스 유입 통로로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의 구강 관리 습관”을 강조했다.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홍보물(포스터, 카드뉴스 등)은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정보→홍보자료→카드뉴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alth.or.kr)→자료실→홍보자료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저린 느낌 ‘좌골신경통’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는 현대인이라면 한변쯤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거운 물건을 든 것도 없는데 허리가 왜 아프지?’ 하며 금방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파스를 붙이고 생활하다보면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혹시 디스크인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 등을 지나가는 좌골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증상을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른다.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농양, 종양, 근근막통증 증후군, 자세불량 등에 의해 발생되며, 근력약화와 척추질환으로 6~7대에 발생하던 증상이었으나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학생, 직장인,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통증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엉덩이에서 다리 후방, 발목, 발까지 당기거나 쏘는 느낌이 나타나며, 타는 듯한 통증, 저린 느낌이 나타난다. 무감각한 느낌, 근력약화가 동반되기도 하며, 오래 서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힘들어 진다. 기침, 배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 힘이 들어가는 동작에서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한의학적으로는 요각통(腰脚痛)의 범주에 속하며, 환도, 양통천, 위중, 팔요통 등을 혈자리를 사용하여 침, 뜸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통해 좌골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인다. 증상에 따라 한약치료를 통해 염증을 줄이고 신경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推拿, 견인치료 등이 필요하다.

좌골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긴장되기 쉬운 장요근, 이상근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하게 앉는 습관을 고쳐야한다. 1시간에 10분 간격으로 일어나 휴식을 취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한다.

무릎을 세운 상태로 편하게 누운 뒤 양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세운 무릎을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흔히 아는 플랭크 자세는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지만 이 자세가 어려운 경우, 버드독, 데드버그, 제자리 걷기 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기어가는 자세를 취한 뒤 교차로 왼손과 오른다리를 들고 5초 버티 뒤 반대로 오른손과 왼발을 들어 5초 버티는 버드독 운동은 근육 강화와 함께 균형을 맞추는 좋은 운동이다. 균형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책을 올린 뒤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좋다.

버드독 자세가 부담이 되는 분은 데드버그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양 손을 위로 뻗는다. 왼손을 머리위로 뻗으면서 오른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주고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다음은 오른손을 뻗으면서 왼다리를 뻗어준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맥내장비 10만 대 보급

응급상황(화재, 낙상 등)에 신속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맥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보급대상: 기초수급·차상위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증장애인)

차세대 맥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에 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 콘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부가가능도 제공)

이를 통해 맥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맥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맥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차세대 맥내장비는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맥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99만 명에 보급했으며, 화재·가스 감지기와 전화기 형태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운영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맥내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

치단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1년 20만 명(누적), '22년 30만 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21년까지 기존 맥내장비(9.99만 대)는 차세대 맥내장비로 전량 교체

맥내장비의 설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철저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

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저차제(시·군·구)의 장기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수 년째 작은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대희(60) 씨는 매년 가을철만 되면 걱정이 하나 더 생긴다. 가을철에 특히 발생률이 높아지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진드기 감염병까지 걱정이 많다.

“매번 긴 옷을 입고 작업장에 들어가는데도 일하다 보면 땀이 나서 옷을 걷어 올리게 되고 그럼 또 진드기한테 물릴까봐 불안하고요”

국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크게 세균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 바이러스성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매년 4천 명 이상 발생하는 진드기 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이 동물의 체액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발열 및 발진이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보통은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또한 오한이나 발열 증세도 보여 가벼운 감기로 오인하기 쉽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세균성 질환으로 진드기 유충에 물려 생기는 짙은 색의 딱지를 통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하 SFTS는 감염시 고

열을 보이며 혈소판도 감소한다. 매개 진드기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추정되며 안타깝게도 이 진드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종이 다.

SFTS는 치명률이 쯔쯔가무시증에 비하여 높긴 하지만 이 역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잠복기는 며칠에서 2주 정도로 증증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특히 고령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특히 더 주의를 요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에는 되도록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야외활동 후 반드시 옷을 털거나 갈아입을 것을 권고한다.

다가오는 추석 전후에는 조상의 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평상시보다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객원기자

첨복재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공모전 최우수상

세계 최초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 아이디어 제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종원, 이하 의료기기센터) 의료신소재TF팀은 버려지던 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중소벤처기업부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첨복재단 정봉수 박사가 이끌고 있는 의료신소재TF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새로운 규제 및 해당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2020 규

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규제특례의 참신성과 새로운 시장 선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응모 총 39건 중에서 13명의 결선진출자가 선발되었으며, 정봉수 박사는 그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 의료신소재TF팀이 제안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은 ‘폐(廢)치아’의 골이식재 활용

을 위해 기증자 적합성, 안전성, 윤리성, 상업성 확보 실증을 통한 세계최초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이다.

동종치아 골이식재라는 용어도 이번에 처음 정의가 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나 발치 등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버려지는 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이식에 비해 거부반응이 적고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골이식재 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는 사체의 뼈나 동물의 뼈가 이식 재료로 사용돼 오고 있다.

〈자료제공: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미로 보는 **우울**



36년생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48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손해 를 안 본다. 6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급할 것이 없다. 72년생 공과 사를 구분을 잘해야 손해가 없다. 84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남에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96년생 자세히 살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



37년생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어려움을 해결한다. 49년생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용이 중요하다. 61년생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으니 걱정마라. 73년생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취한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눈앞에 있다. 85년생 마음에 맞는 사람과 힘을 합쳐 일을 하게 되니 편안한 모습이다. 97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38년생 계획만 세우고 시작을 안 하니 결과도 없다. 50년생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62년생 뒷사람의 말을 잘 따르면 큰 이익이 생긴다. 조연을 따라야 한다. 74년생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외롭다. 86년생 아랫사람을 들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다음으로 미루어라. 98년생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다.



39년생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하지마라. 꼭 문제가 된다. 51년생 일한 만큼 이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잘못된 일은 들어내야 해결이 된다. 75년생 이미 지난 일은 빨리 잊어 버리는 것이 좋다. 87년생 주변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40년생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마라. 함께 해결해야 한다. 52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한다. 꾀를 부리지 말 것. 64년생 신경을 많이 쓰면 오히려 일이 꼬인다. 76년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시 피하는 것이 좋다. 88년생 약간의 재물을 얻지만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좋다.



41년생 많은 돈이 들어올 때 건강을 챙겨라. 53년생 규칙을 지켜갈 때 일이 잘 풀린다. 65년생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일을 포기하면 오히려 잘 풀리게 된다. 89년생 헛소문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다.



42년생 되도록 큰물에서 놀아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54년생 좋고 나쁜 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66년생 부정 한 행동을 하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90년생 이성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구설수를 조심하라.



43년생 큰물에서 놀게 되니 얻는 것 또한 많다고 할 수 있다. 55년생 길흉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남을 탓하지 마라. 67년생 부정 한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79년생 작은 노력으로 크게 얻으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91년생 일이 지연되지만 결국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고지가 눈앞에 있다.



44년생 주변 사람들과 화합할 일이 생긴다. 56년생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68년생 두세 번 노력해야 원하는 것을 이룬다. 80년생 친한 사람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92년생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니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45년생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은 얻지만 크지 않으니 허무하다. 57년생 정당한 방법으로 나아 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간다. 69년생 거짓말은 들롱 나기 쉬우니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라. 81년생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하는 법이니, 여러 가지 손대지 마라. 93년생 열심히 노력하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더없이 행복한 시기이다.



46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으니 쓸데없이 끼여들지 마라. 58년생 대인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귀인이 나를 떠나가게 된다. 70년생 사사로운 인정에 매달리면 괴로워지니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라. 82년생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 94년생 자신의 실수를 빨리 인정해야 한다.



47년생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59년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71년생 잘못된 일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온다. 83년생 자존심을 버리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된다. 95년생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제공: 당신의 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9월 17일 목요일	9월 18일 금요일
 최저 21℃ 최고 25℃	 최저 18℃ 최고 25℃
9월 19일 토요일	9월 20일 일요일
 최저 15℃ 최고 26℃	 최저 15℃ 최고 26℃
9월 21일 월요일	9월 22일 화요일
 최저 13℃ 최고 25℃	 최저 14℃ 최고 24℃



시시상식 코로나 블루

☞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계에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시간 등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손 씻기나 코와 입에 손대지 않기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매일 같이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운데,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도 주의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시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퍼즐



제991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①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과줄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 발표 : 1.13호

989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자율주행의 디지털 자동차강국
씨네80

자동차극장 관람권 1매 ☎ 984-8008

장봉능(대구 화랑로) / 강남회(삼성동 화랑로)

미과 **SPLEX**
HIGWANGSPOLEX

고동진 워터파크 클럽 | 소위사설스포츠경기장사우나

이용권 2매 ☎ 593-9990~8

이진욱(달성군 다사읍)

휴림원

이용권 2매 ☎ 585-0100

이정호(달서구 본동)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가로열쇠>
2. 옛날의 때, 왜 또 ○○○ 애기는 꺼내고 그래?
4. 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둘둘개 만 종이, 편지나 그 밖의 글을 쓸 때 쓴다. 글이 적혀 있는 ○○○○를 꺼내 사람들 앞에 펼쳐 놓았다.
5. 이인적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신교육, 여권 신장과 같은 새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7.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저 사람이 ○○ 인니까?
8. 인기척을 내거나 목적을 가다듬거나 하기 위해 일부러 기침함.
10. 한복 윗옷의 하나. 길, 소매, 앞, 깃, 동정, 고름, 끝동, 화장 따위가 갖추어져 있다.
11. 신문, 잡지 따위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낸, 또는 그 원고.
13. 인위적으로 채취한 수컷의 정액을 암컷의 생식기 안에 주입하여 수정시키는 일. 가족, 어류 따위의 번식이나 품종 개량에 이용하며, 사람의 불임증에도 시행하고 있다.
14. 도망간 종을 찾아오면 일.
18. 궁중의 연회 때와 세모에 역귀를 쫓는 의식 뒤에 추던 함악의 춤.
19. 겁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21. 미국의 작가 버넷이 지은 소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살아가는 세라(Sara)의 겸손하고 성실한 생활을 통하여 이상적인 소녀를 묘사했다. 1888년에 발표했다.

22. 빈틈없이 아주 여무진 사람.
23. 혼인해 남자의 짝이 된 여자.

<세로열쇠>

1. 호각이나 우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긴 쇠붙이나 줄, 끈 따위를 구부리고 양 끝을 맞붙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든 물건. 나는 열면 문을 닫고 ○○를 걸어 버렸다.
3.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붉은색의 고형 성분.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속에 함유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몸의 각 부분에 나르는 구실을 한다.
6. 명주실을 뽑아 내는 원료.
7. 누덕누덕 기운 현 옷.
9. 대체로 상록 교목으로 구과(구과식물의 열매)를 맺으며 재목은 건축재나 토목재로 쓴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따위가 있다.
12. 긴 원뿔 모양으로 처음에는 초록색이나 익을수록 빨갛게 된다. 생식하거나 익혀서 양념이나 반찬으로 쓴다. ‘작은 ○○가 더美味다’
13. 사람의 형상이나 탈.
15.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여자.
16. 달리 어찌할 수 없음. 아무리 말려도 ○○○로 담버든다.
17. 목청을 돋워 가며 야단치는 소리. 어른이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집 안에서 ○○○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
20.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989회 정답>

수	기	교	사	화	신	하
발	버	등	색	행	호	
크			아	등	바	등
일	성	춘	동	한	사	
머	유	사	하	주	인	
우	리	병	행	지	덕	
개	동	한	을	지	다	
승	골	신	가	집	씩	
물	괴	리	미	통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 (053) 572-6000팩스 :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www.pr5726000.co.kr (우편번호: 42640)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등록번호 대구 다01130
▶간행 주 간
▶인쇄처 미디어프린팅(주)
▶발행인 조강래
▶편집인 조강래

대금주 : 푸른신문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푸른방송 케이블TV는 채널, 가격은 그대로! 장비 없이 즐기는 고품질 HD방송!



푸른방송 HD케이블TV + 인터넷

월 11,500 원

(부가세 포함, 현대백화점 제휴카드 월 1만원 이상 결제시)

푸른방송 신규 고객 1개월 무료
8,800원

푸른방송 가족 소개 시 141명으로
신규 고객인 소개 시 1개월 무료 혜택
8,800원

한인대 제휴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할인
4천원 할인

푸른방송

디지털케이블TV · 아날로그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 전화

가입문의

551-2000

www.gcs.co.kr

※서비스 가능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달성군

함께 하는
즐거움

은은과 김정은은
씨름씨가족오락파브어

CMC TV

디지털:57
아날로그:37-1

CMC tv 1588-0669

www.cmctv.co.kr